

원초적 해석의 축소주의적 이해

김 동 현

【국문요약】 마이클 윌리엄스는 그의 논문에서 데이빗슨의 원초적 해석은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에 해당한다는 통설에 반대하면서, 해석에서는 실제로 팽창적 진리가 설명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해석은 진리 축소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는다.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원초적 해석 내에서 진리와 의미 사이의 설명적 구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윌리엄스의 주장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의 진단은 해석에 포함된 몇 가지 중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윌리엄스의 대안적 해석 이론이 수용될 여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진리 조건에 대한 축소 또는 팽창적 이해는 원초적 해석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낳는 전제조건이며 그에 따라서 원초적 해석을 축소주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결정됨을 본 논문은 논증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비슷한 평가가 호위치의 사용 의미론과 데이빗슨 사이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윌리엄스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서술할 것이다.

【주요어】 데이빗슨, 윌리엄스, 진리 조건, 진리 축소주의, 원초적 해석

1. 들어가는 말

도널드 데이빗슨(Donald Davidson)의 의미 이론은 일반적으로 진리 조건적 전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마이클 윌리엄스(Michael Williams)는 그의 논문을 통해, 데이빗슨의 의미 설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과정인 원초적 해석(radical interpretation)은 실제로는 진리의 설명적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데이빗슨의 해석은 진리의 축소된 개념(deflationary notion of truth)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윌리엄스가 재해석한 형태의 데이빗슨 이론이 전통적으로 이해된 것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검토하고, 윌리엄스의 대안적인 이해가 정당한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2장에서 데이빗슨의 진리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른가를 논증한 후, 이어지는 3장에서 윌리엄스의 대안적인 이해를 요약 정리할 것이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윌리엄스의 논변의 근간이 되는, 해석에서 진리와 의미가 상호 설명적인 구도에 놓여 있으며 해석은 추가적인 이론적 원천 없이 수행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그의 언명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4장에서 분석한 윌리엄스의 핵심 결론의 수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수용 가능성이 의존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윌리엄스의 대담한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2. 데이빗슨의 진리

그의 1967년 논문에서 데이빗슨은 내포적 의미 이론이 가지는 몇 가지 불만족스러운 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외연적 의미

이론을 제안한다. 그의 선택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타르스키식 진리 이론 **자체**를 의미의 이론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칭이나 만족 등과 같은 의미론적 개념들을 통해서 진리 술어의 외연을 고정시키는 타르스키와는 반대로, 데이빗슨은 전체론적 언어 구도 하에서 문장이 참이 되는 진리 이론이 곧 그 문장이 속한 언어의 의미 이론으로 역할한다.

그런데 의미 이론으로 역할하는 ‘진리 이론’에서 데이빗슨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진리 개념은 정확히 무엇인가? 프레게와 마찬가지로 데이빗슨도 진리가 더 기초적인 다른 개념들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는 [진리 개념을] 더 투명하거나 파악이 더 쉬운 무언가에 의해서 규정하려고 희망할 수 없다. 진리는… 정의 불가능한 개념이다.”라고 단언한다.¹⁾ 이러한 생각은 그가 초기부터 변경 없이 그의 일생동안 일관되게 견지되었으며, 후기의 문헌에서도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주장한다.

“진리의 개념에 대해 행동주의적 정의 또는 다른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정의나 술칙한 환원 등을 모색하는 것은 실수이다. 진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명료하고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 중의 하나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더 단순하거나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제거하려고 꿈꾸는 것은 소용이 없다.”²⁾

다만, 진리를 원초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데이빗슨의 확고한 견해도 불구하고, 그의 서술방식에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 것이

1) Davidson (1996), p. 21.

2) Davidson (1990a), p. 314. 다만 이 생각은 진리가 인식 초월적인 개념이라는 생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데이빗슨은 타르스키의 규약-T가 어떤 술어가 진리 술어가 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며 따라서 진리 술어에 요구되는 속성을 적절히 나타낸다고 보면서도, 그러한 속성이 주어진 언어에 테두리 바깥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할 초월적인 원천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Davidson (1973a), p. 72. 참조.

사실이다. 데이빗슨은 실재론적 진리 개념과 인식론적 진리 개념 모두를 거부하는데³⁾, 그들 각각의 견해를 대표하는 전통적 이론은 역시 대응론과 정합론이다. 문헌적 혼란은 이들 이론들에 대한 데이빗슨의 서술이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서 기인한다. 액면상으로는 처음 1969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는 “일종의 대응 이론”을 옹호한다고 말하더니,⁴⁾ 얼마 후에는 “진리와 지식의 정합 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⁵⁾ 그 후 1990년에는 위에 인용한 것과 같은 아이디어를 밝힌다. 얼핏 혼란스러운 의견의 번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빗슨은 자신의 진리관을 변경한 적이 없다. 혼란의 뿌리는 ‘대응’, ‘정합’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그의 특이한 방식이 표준적인 용어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대응’에 대한 그의 긍정은 언어적 표현과 외부 세계의 개별 대상 사이에서 성립하는 타르스키-스타일의 만족 관계에 대한 긍정이지, 사실-문장 대응관계에 대한 긍정이 아니다. ‘정합’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지식과 진리에 관한 정합론의 한 버전을 방어한다”⁶⁾고 말할 때, 실상 그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체계가 총체적으로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정합’에 대한 데이빗슨의 옹호는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닌 믿음의 정당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⁷⁾

3) 배식환 (2009), IV장이 이에 관한 명료한 해설 중 하나이다.

4) Davidson (1969), p. 37.

5) Davidson (1983), p. 139. 그러므로 해당 논문의 제목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데이빗슨 자신도 해당 논문이 수록된 책의 서문에서 “내가 쓴 논문들 중에서 가장 고쳐 쓰고 싶은 논문”이라고까지 말한다. Davidson (2001), pp. x v - x vi.

6) Ibid. p. 137.

7)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명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고 데이빗슨은 주장한다. Davidson (1982) 참조.

이러한 문헌적 혼란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데이빗슨이 옹호하는 진리 개념은 정의 불가능한 원초적 개념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데이빗슨 본인의 명시적인 언급과 데이빗슨을 검토하는 여러 문헌들에서 재확인되듯이, 그의 선택은 원초적이고 팽창적인 진리 개념에 의존해서 의미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빗슨이 진리 축소주의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바로 진리가 다른 것들 특히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에 있다. 데이빗슨 의미론에서의 진리 조건의 역할은 많은 해설(예를 들면 Miller 1998 등)에서 이미 충분히 서술된 내용이므로,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는 데이빗슨 본인이 말하는 다음의 압축적인 언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나는 진리를 통해서 만족을 설명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내가 진리를 정의하려 했었다면, 이는 순환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리를 정의하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는 것이다. 역설의 위협을 지니고는 있지만, 진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분명하고 가장 기초적인 의미론적 개념이다. 나의 전략은 진리 개념에 대한 우리의 파악이 어떻게 술어 화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이는 것이다.⁸⁾

3. 윌리엄스의 대안적 이해

그러나 윌리엄스는 데이빗슨 의미론에서 팽창적 진리가 정말로 설명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윌리엄스의 주장은, 우리에게 의미의 이론을 제공하는 방법인 원초적 해석이 널리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실제로는 진리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윌리엄스는 아마도 데이빗슨 본인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다음의 대담한 주장을 내놓는다.

⁸⁾ Davidson (1990a), pp. 160-161.

우리는 정말로 진리에 대한 담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의미를 설명하는 것과,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진리를 설명하는 것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가? 비록 데이빗슨적 의미 이론이 진리에 대한 선행적 파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이론에서의 진리의 기능이 의미에 대해 설명적이라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이론이 우리에게 의미에 대한 어떤 것 그리고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진리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 도출되지는 않는다.⁹⁾

만약 윌리엄스의 말이 옳다면 데이빗슨은 자기 스스로의 이론을 오해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필자가 2장에서 서술했듯이 데이빗슨의 의미 설명은 진리에 의존하며 여기서 진리는 설명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지위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이것이 잘못된 이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윌리엄스가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는 데이빗슨에게 “의미 이론”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뜻을 지님을 지적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의미 이론은 공리적, 회귀적 이론으로서 그 이론으로부터는 문장들의 진리 조건만이 산출된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의미 이론에서만큼은 문장 의미는 진리 조건과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좁은 의미에서의 의미 이론은 주어진 언어의 개별 문장들의 의미를 생성하는 이론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없다고 윌리엄스는 생각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 이론은 여기에 원초적 해석이 더해진 의미 이론을 가리킨다. (Davidson 1973b)

그렇다면 좁은 의미에서의 의미 이론에 진리 술어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등장하는 것인가? 진리 술어가 필요한 이유는 T-문장에서 진리 술어를 누락시키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데이빗슨이] ‘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가 ‘~

⁹⁾ Willaims (1999), p. 556. 필자의 강조.

를 의미한다(means that)'를 실질 쌍조건언에 의해서 배제시키기 때문일 뿐이다.”¹⁰⁾ 이것이 윌리엄스가 진리 술어가 대상 언어 문장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언어의 문장과 연결시키는 **표현적**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배경의 하나이다. 물론 아무 술어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타르스키의 규약 T에 의해서 오로지 진리 술어만이 올바른 T-문장들을 함축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윌리엄스는 다시 전통적인 데이빗슨으로부터 갈라진다. 데이빗슨은 그의 1990년 논문을 포함한 여러 문헌들에서 타르스키를 축소주의자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반면에 윌리엄스는 T-문장들에 의해 포착되는 진리 술어의 두 가지 특징은 “탈인용의 장치”와 “의미론적 상승”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¹¹⁾ 축소주의적 진리와 타르스키에 의해 제안된 진리의 의미론적 개념 사이에는 어떠한 중대한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의미 이론이 진리의 팽창적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윌리엄스의 지적은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좁은 의미에서의 데이빗슨적 의미 이론은 콰인의 번역 매뉴얼과 유사하다’¹²⁾는 윌리엄스의 말에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든 넓은 의미에서든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이론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의미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의미를 보다 친숙한 개념을 통해서 환원적으로 해명하는 대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기획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 알아야 한다고 요청되는 지식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타르스키의 의미론적 진리개

10) Ibid. p. 557.

11) Ibid. p. 550.

12) Ibid. p. 556.

념 역시 철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을 확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가 연구했던 주제는 어떤 언어를 위한 **한** 진리 **술어**를 의미론적 역설을 피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었으며, 타르스키 자신은 그 술어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칭되는 속성의 팽창성(robustness)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었다.¹³⁾ 그의 작업에는 어떠한 진리-이론적 시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 조건적 설명을 시도하는 데이빗슨뿐 아니라 그 대척점에서 있는 축소주의자들까지도 타르스키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윌리엄스의 대안적 이해가 공정한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 이론이 표현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진리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윌리엄스는 해석의 요소를 몇 가지로 나눈 후, 각각에서 진리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해석 이론의 첫 번째 요소는 전체론이다. 번역과 달리 해석은 그 언어의 문장들의 논리적 구조를 그 언어의 전체 문장들 및 그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의존해서 발견해 나가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작업 중 하나가 자연언어 문장을 1차 논리의 틀에 따라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팽창적 진리 개념도 연관될 필요가 없다고 자세한 이유를 생략한 채 주장한다.¹⁴⁾ 일단 데이빗슨이 개별자들만을 포함하는 그의 존재론과 잘 조화되는 1차 논리를 그의 의미론의 틀로 선택하는 것은 분명하며, 1차 논리를 고전 논리적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직관주의 등의 다른 대안적 방식으로 이해하든 관계

13) 배식한 (2009), pp. 140-176. 참조

14) Williams (1999), p. 560.

없이 논리적 언어 분석은 진리 팽창성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윌리엄스의 생략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표적인 축소주의자인 폴 호위치(Paul Horwich)도 특정 논리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리 개념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논리 상황들의 특징규정(characterization)을 축소주의적 방식에 따라 추론 규칙에 의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전 논리가 아닌 다른 대안적 논리 예를 들면 직관주의를 따라서 추론 규칙을 받아들여더라도 축소주의의 핵심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직관주의와 고전논리 사이의 선택은 축소주의 진리 개념과 “독립적”인 문제라는 것이다.¹⁵⁾ 필자 역시 고전논리와 직관주의 중 어느 쪽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1차 논리 자체가 팽창적 진리 개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호위치 및 윌리엄스의 의견에 동의한다.¹⁶⁾

윌리엄스가 열거하는 해석의 두 번째 요소는 자비이다. 그에 따르면 데이빗슨의 문헌에서 자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 측면은 일관성이다. 일관성은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의존하는데 만약 대화 참여자들이 발화하는 문장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비일관성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런 대규모의 비일관성은 나와 상대방의 발

15) Horwich (1998), pp. 74-76. 및 p. 82. 참조.

16) 혹자는 윌리엄스의 핵심은 1차 논리 체계가 아니라, 주어진 언어에 속한 모든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관한 전체론적(holistic) 구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비록 전자의 문제는 고전 논리와 직관주의 사이의 선택으로부터 독립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후자의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초적 해석에서 하나의 발화와 그것이 속한 언어의 잠재적으로 무한한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발견해 나갈 때, 해석자는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배중률 원리 및 이중 부정 제거규칙 등에 의존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밝혔듯이 여기서 논리 체계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여전히 팽창적 진리의 요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화들을 모두 참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가정이 활용되지만, 윌리엄스는 이 가정에 어떤 팽창적 진리 개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전술한 해석의 첫 번째 요소 즉 전체론적 구도가 팽창적 진리를 요구하지 않는 논거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비의 두 번째 차원은 동의이다. 해석은 믿음과 의미라는 두 미지향을 가진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데이빗슨의 제안은 믿음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윌리엄스는 우리의 믿음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믿음을 해석하는 활동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agreement)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믿음을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이렇다면 조건 p라면 그에게 믿음 p를, 조건 q라면 그에게 믿음 q를 귀속시키라는 등의 원칙이지만, 이것도 축소주의가 인정하는 진리의 **표현적**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⁷⁾ 해석에서 진리가 하는 역할은, 현실의 발화 상황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까지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발화 상황들에서의 승인 혹은 거부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윌리엄스의 주장이다.

이 대목에서 윌리엄스는 원초적 해석을 콰인의 원초적 번역과 유비시킨다. 두 이론 모두 문장 단위에서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번역 매뉴얼을 구성하는데, 우리 자신의 언어에서의 문장을 대상 언어의 문장들과 연결시키기 위한 매뉴얼이 성공적인가의 여부 또한 원초적 번역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기준들, 즉 정합성, 의사소통에서의 매끄러움, 예측가능성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Quine 1990 §16) 원초적 번역도 마찬가지로 문장 단위의 의사소통의 성공을 기초로 해서 개별 단어들에 대한 번역 매뉴얼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성공은 “대화에서의 부드러움,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반응의 빈번한 예측가능성, 그리

17) Williams (1999), pp. 561-562.

고 원주민 진술의 일관성과 그럴듯함”(Quine 1990 §21) 등에 의해서 판정되는데, 윌리엄스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팽창적 진리 개념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석에서 진리가 설명적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관찰 문장과 주장가능성 조건 사이의 관계이다. 윌리엄스는 관찰 문장의 경우에서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은 결국 주장가능성 조건을 통한 의미 설명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자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장가능성 조건을 서술하기 위해 필요한 진리술어는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주장가능성 조건을 제공하는 탈인용으로서의 장치(예를 들어서 “토끼가 뛰어간다.”의 주장가능성 조건은 토끼가 뛰어가는 것이다)라는 같은 표현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은 사용 규칙성에 기초한 호위치의 축소주의적 의미 설명 전략인 사용 의미론(UTM: Use Theory of Meaning)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윌리엄스는 평가한다.¹⁸⁾ 따라서 해석 이론에서 진리가 의미를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해석 이론은 축소주의적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데이빗슨의 의미와 진리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결국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 이론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성요소에 집중된다. 자비, 동의, 그리고 주장가능성 조건의 일반화에는 과연 진리의 어떠한 역할도 포함되지 않는가? 이 질문에 공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해석에서 진리와 의미가 어떤 구도로 관계되는지에 관한 윌리엄스의 보다 직접적인 언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¹⁸⁾ UTM에 대해서는 Horwich (2005) 2장 또는 본고의 5장 참조.

여기에는 어떠한 순환도 없다. **의미는 진리를 설명하며 진리는 의미를 설명한다.** 오히려, 데이빗슨적 의미 이론은 우리에게 의미에 대한 것과 진리에 대한 것을 말할 힘을 해석 이론으로부터 도출한다. 해석 이론 안에서는 의미도 진리도 원초적 개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데이빗슨은 그가 진리를 통해 의미를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한 것은 의미와 진리 모두를 해석에 호소해서 밝힌 것이다. **해석은 확장적인 이론적 원천 없이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다.**¹⁹⁾

마지막 문장의 “확장적인 이론적 원천”은 의미와 진리를 가리키므로, 이 언명은 의미와 진리 모두 해석에서 설명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인용문의 첫 번째 문장은 그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주장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윌리엄스의 논문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빗슨 이해는 다음의 세 갈래이다.

- (U₁) 진리 개념을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진리 조건적 구도로 이해.
- (U₂) 진리와 의미가 상호 의존하며, 해석 이론은 의미를 설명하는 동시에 진리에 대해서도 일정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이해.
- (U₃) 해석은 진리로부터의 설명 역할 없이 실행 가능한 활동이라는 이해.

(U₁)은 데이빗슨에 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해이며, (U₂)와 (U₃)는 윌리엄스의 독자적인 이해이다. 필자는 (U₁)이 데이빗슨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데 동의한다. 사실 (U₁)에 반대하는 데이빗슨 관련 문헌은 그리 많지 않으며, 본 논문에서 고찰하는 윌리엄스의 논문이 데이빗슨에 관해 (U₁)로부터 벗어나는 이해를 제시하는 몇

¹⁹⁾ Williams (1999), p. 564. 필자의 강조.

안 되는 문헌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첫째, (U₂)도 데이빗슨이 주장하는 바의 일부인가? 그리고 만약 (U₂)도 데이빗슨의 진리 개념에 대한 일리 있는 이해라면 그것은 우려되는 순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둘째, 윌리엄스는 어떤 근거에서 (U₃)와 같은 대담한 이해를 제안하며, “어떠한 외부적 원천도 필요 없이 가능한 활동으로서의 해석”이란 서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진리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와, 문장이나 발화가 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조건에 대한 문제를 구분해야만 얻어질 수 있다. ‘진리 이론’에 관한 데이빗슨의 서술 안에는 두 가지 담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쟁점들을 주의 깊게 구분해가며 읽어야 한다. 그의 진리 개념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한, 정의될 수 없는 원초적 개념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해석을 통해 진리가 통찰을 제공받는다는 이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우리는 의미가 없는 문장에 대해 그것이 참이 되는 조건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이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것이 바로 진리 이론인데, 데이빗슨에게는 진리 이론과 의미 이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이론이 곧 의미 이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은 문장이 참이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일정한 해명을 제시한다고 말하는 (U₂)는, 겉보기보다 급진적인 이해는 아니다. 데이빗슨의 1990년 논문의 마지막 문장²⁰)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해석 이론에서 화자가 어떤 발화를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발화된 문장의 의미와 그 화자의 믿음이라는 두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며,

20) “진리는 결국 믿음에 의존하며, 심지어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정서적 태도에 의존한다.”

본문에 인용한 윌리엄스의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윌리엄스는 위 인용문에서 진리와 의미가 “서로를 설명하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서술했을까? 의미와 진리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며 윌리엄스와 데이빗슨 두 사람 모두 이런 상식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데이빗슨은 둘 중 하나를 설명적으로 더 원초적인 위치로 상정하고 그에 의해서 다른 하나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즉 진리에 대한 데이빗슨의 입장은 일관되게 (U_1)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U_2)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U_2)는 철학적으로 중립적인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역시 데이빗슨 의미론의 일부로 수용 가능하다. 해석 이론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윌리엄스도 (U_2)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스에 의하면 해석 이론은 (U_2)가 말하는 대로 “진리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주며²¹⁾, 의미 이론의 T-문장들은 진리의 외연을 고정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것과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5. 윌리엄스의 대안에 대한 평가

하지만 윌리엄스의 독자적 주장인 (U_3)도 데이빗슨 해석 이론의 정당한 일부가 될 수 있는가?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하는 점은, (U_3)은 축소주의 진리 개념이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과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리 조건적 의미론은 의미를 진리 조건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므로 의미에 대한 진리의 설명 역할을 긍정하며 따라서 진리는 희박한 개념이므로 설명적

21) Ibid. p. 563.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표현 장치에 불과하다는 축소주의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 진리 조건적 이론과 축소주의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언어철학에서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논제이며, 윌리엄스가 이 논제까지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윌리엄스의 대안적 관점의 핵심은 데이빗슨의 원초적 해석이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팽창적 진리의 설명 역할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진리 조건적인 의미 설명도 아니라는 주장에 있다.

윌리엄스가 재구성한 방식의 해석은 문장이 수용 혹은 거부되는 일련의 조건들에 대한 일반화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윌리엄스의 해석 이론은 개별 문장에 대해 각각의 사용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의 수용 혹은 거부에 호소해서 대상 언어에 대한 의미론에 전체론적 구도로 접근하는 방식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U₃)을 검토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은, 문장 표현의 의미를 문장 단위에서의 사용-속성으로부터 추출하는 의미 설명 이론을 문장이 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조건들의 일반화에 의존해서 문장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윌리엄스가 답변의 책임을 지는 질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윌리엄스의 논증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해석이 팽창적 진리의 설명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윌리엄스에 반대하여 해석의 팽창성을 옹호하는 이들이 윌리엄스가 재구성한 해석 이론에서도 진리가 수행하는 모종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역할이 무엇인가는 윌리엄스가 아닌 윌리엄스의 반대 진영에서 먼저 밝혀야 한다. 그들은 윌리엄스의 해석 이론에서의 팽창적 진리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리 조건이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진리 조건이란

글자 그대로 진리 담지자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진리 조건의 개념을 이보다 더 자세하게 특징 규정하는 작업은 잉여적이고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진리 담지자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진리 담지자가 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진리론의 핵심 질문과 결국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진리 대응론자들은 진리 담지자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 담지자가 개별화된 특정 사실과 대응하는 조건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반면 진리 조건을 축소주의의 한 갈래인 최소주의(minimalism)에 따라 이해한다면, 최소주의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T-문장에 의해 표현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게 된다. 그리고 진리 조건의 개념을 팽창주의적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축소주의적으로 이해하는지의 여부는 그 개념에 기초한 다른 논의의 결론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진리 조건을 이른바 ‘삼각구도’라는 팽창적 구도로 규정하는 데이빗슨에게는 그러한 진리 조건 개념에 의존하는 의미 이론 역시 팽창적인 설명일 수밖에 없다. (Davidson 1990b)

이제 축소주의자인 윌리엄스가 해석에 의해 포착되는 T-문장들로 이루어진 진리 이론에 팽창적 진리 개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근거들을 돌이켜 보자. 윌리엄스가 이해한 해석 이론은 일관성, 동의, 그리고 주장가능성 조건 등을 통해 언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해석의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는 청자에 의해 참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만약 여기서 ‘그 발화가 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축소주의적으로 이해한다면 데이빗슨의 해석은 윌리엄스의 주장대로 팽창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 발화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기술하는 개별 T-문장에 포함된 진리 술어가 수행하는 역할은 오로지 동의 행위나 주장가능성 조건 등에 대한 일반화를 하기 위한 표현적 장치로서의 기능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윌리엄스가 그의 논문에서 제시하는 주장이며,

그 배후에는 진리 조건 개념에 대한 축소주의적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전제가 사전에 거부된다면, 다시 말해서 해석이 팽창적인 뜻에서 발화가 참이 되는 조건에 기초해 발화의 의미를 알아내는 활동으로 이해된다면, 윌리엄스의 대안적 해석 이론 역시 화자의 진리-수용 태도에 기초하여 진리 이론을 확증하고 다시 그 진리 이론이 해당 언어에 속한 임의의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기 위한 충분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에 해당하게 된다. 즉, 진리 조건적으로 이해된 해석과 진리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²²⁾

이 분석은 진리 술어가 표현하는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질문과도 연관된다. 진리의 표현적 역할은 축소주의와 팽창주의 양측에서 공히 인정한다. 다만 축소주의는 진리는 표현적 역할 외에는 다른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이 차이이다. 축소주의자들이 진리 술어의 제거를 요구하지는 않는 이유는 진리 술어가 수행하는 표현적 역할을 대신할 장치가 우리 언어에서는 진리 표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만약 원초적 해석에서 이루어지는 일반화가 발화 행위, 그 발화에 대한 시인 및 거부 행위, 그리고 그 발화가 이루어지는 발화 상황에 대한 일반화 이론의 구성에 해당한다면 윌리엄스의 주장인 (U_3)는 힘을 잃

22) 윌리엄스가 주장가능성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다음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리를 설명적으로 원초적인 것으로서 호소하지 않는 의미 설명이 모두 ‘주장가능성 조건’ 전략으로 간주되더라도 괜찮다. 하지만 [...] 주장가능성 조건이 원자론적인, 환원주의적인, 그리고 고정 알고리즘에 따른 관찰 가능한 용어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개별 문장의 주장가능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추론 활동은 전체론적이다. [...] 주장가능성을 위한 규범들은 이론에서 우선 무엇보다도 암묵적이다.” Williams (2001), pp. 154-155.

23) 진리 술어의 표현적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Armour-Garb and Beall (2005) 및 김동현 (2012) 참조.

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표현하는 대상의 범위를 팽창적으로 규정하면 진리의 ‘표현적 역할’ 역시 그에 따라서 팽창적인 역할로 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U_3)에서 말하는 진리 술어의 표현적 역할의 범위가 축소주의에서 인정되는 범위로만 제한되면 (U_3)의 주장대로 해석에서의 진리의 팽창적 역할은 거부된다. 결국 윌리엄스의 핵심 주장인 (U_3)가 수용 가능한 논제인가의 여부는, 예컨대 토끼가 지나가는 이러저러한 발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 “가바가이”를 ‘토끼가 지나간다’로 해석하는 활동을 두 가지 대안적 방식 중 어느 쪽에 따라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초적 해석에서 수행되는 일반화가 단순히 언어적 표현들에 대한 양화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표현들에 대한 양화를 넘어 발화와 발화 상황 그리고 발화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일반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의존해서, 데이빗슨이 자기 스스로의 이론을 오해했다는 주장의 수용 가능성도 결정된다.

우리는 윌리엄스가 통칭 ‘진리 조건적’인 의미 설명도 축소주의의 포괄범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을 분석했다. 필자가 제안하는 분석에 의하면, 축소주의자인 윌리엄스가 그와 같은 주장을 내놓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된다. 축소주의자인 호위치도 마찬가지로 배경에서 윌리엄스와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다. 호위치는 자신의 UTM을 진리 조건적 의미론과 비교하면서, 진리 조건적인 지칭이나 만족 등도 결국은 사용 규칙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진리 조건적 의미론은 사용 의미론의 한 형식(form)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²⁴⁾ 물론 호위치는 UTM이 진리 조건적 의미론과 어떤 형태로든 결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만약 진리 조건이라는 것도 축소적으

24) Horwich (2005), pp.44-45.

로 이해되면 그 개념은 축소주의적 의미 설명 방식에 어떠한 위협 요소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스 역시 자신이 재구성한 해석 이론과 호위치의 UTM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한다.²⁵⁾ UTM이 단어 의미를 설명하는 전략은, 그 단어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의 패러다임적 사용에서 추출되는 사용 규칙성(use regularity)을 규정한 후, 그로부터 그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의 수용-속성에 의거해서 단어의 의미-속성을 추출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확보된 단어 의미로부터, 문장을 포함한 복합 표현의 의미는 조합 원리(composition principle), 즉 전체 복합 표현의 의미는 그것의 구성 요소들의 의미와 그것의 구문론적 구조에 의존한다는 원리에 기초해서 사소하게 설명된다. 즉, 문장 의미의 설명은 호위치의 전략에선 조합 원리 외에 다른 더 덧붙일 설명이 필요 없는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²⁶⁾ 그에 비해 데이빗슨은 비록 대상언어 문장의 참을 통해서 문장의 구성요소 단어들의 의미를 제공하는 진리 이론의 확증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UTM과 구별되지만, 발화 행위와 시인 및 거부 행위 사이의 일반화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UTM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윌리엄스의 말대로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은 호위치의 축소주의적 의미 설명과 “그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제안하는 분석에 의하면, 그 여부는 UTM에서 의미가 추출되는 단어의 패러다임적 사용을 어떤 위상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진리 조건을 단어를 포함하는 문

25) “데이빗슨과 호위치는 그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다.” (Williams (1999), p. 562.)

26) Horwich (2001, 2005) 참조. 조합 원리는 철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원리인 맥락 원리(the context principle, Frege (1884), §60), 즉 개별 단어의 의미는 문장의 맥락 안에서만 올바르게 고찰될 수 있다는 원리와 반드시 상충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합 원리는 의미, 이해, 의사소통 등을 망라하는 언어 철학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교집합으로서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장들의 패러다임적 사용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데이빗슨식 해석과 UTM 사이의 유사성을 긍정 하는 윌리엄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UTM은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과 대척점에 놓인 의미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바탕에 자리한 핵심 분기점은 진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 놓인 보다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발화된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을 (윌리엄스와 호위치가 공히 의미 설명의 기초로 삼고 있는) 개별 사용 상황에서의 주장가능성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의견 차이이다. 데이빗슨에게 의미 이론으로서 기능하는 진리 이론은, 피해석자의 수용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세계의 모습들에 대해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일종의 이론적 **가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리 조건은 언어적 표현과 발화 상황 사이의 단순한 규칙성과 동일시될 수 없다. 하지만 윌리엄스와 호위치는 진리 조건 개념에 대한 데이빗슨의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다.

물론 UTM이 진리 축소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 설명 방식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추론주의적 의미론(Sellars 1980, Brandom 2008 등)에서는 표현의 추론 역할에 기초해서 표현의 의미를 비-진리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원초적 해석이 UTM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원초적 해석이 팽창적 의미 설명이라는 귀결로 이어지지 않는다.²⁷⁾ UTM이 유일한 축소주의적 의미 설명이 아니라는 점은 필자도 인정한다. 게다가 문장 표현의 의미가 구성요소 단어 의미와 조합 원리에 의해 사소하게 설명된다는 호위치의 논쟁적인 제안은 추후의 연구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여기서 필자가 UTM에 주목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윌리엄

27) 이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연구자에게 감사드린다.

스 **자신**이 그의 논거의 하나로서 UTM과 해석 사이의 유사성을 채택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호위치와 윌리엄스가 공유하는 진리 조건 개념의 축소주의적 이해로부터 비슷한 귀결이 얻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필자는 이를 통해 윌리엄스의 논거 채택 배경을 보다 명료히 드러내 보이기를 의도하였다.

6.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데이빗슨의 원초적 해석이 팽창적 진리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윌리엄스의 주장을 고찰하였다. 필자의 분석은 진리 담지자가 참이 되는 조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윌리엄스의 주장의 수용 가능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2장에서 데이빗슨의 원초적 해석의 기저에 놓인 진리는 더 이상 환원되지 않는 팽창적 속성으로 간주되지만, 그러면서도 인식 초월적 개념 즉 우리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정립되는 개념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데이빗슨의 진리론은 이처럼 얼핏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이는 원초적 해석에 대한 윌리엄스의 대안적 이해가 비롯된 토대 중 하나가 된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부터 도출되는 함의 중 하나는, 진리 축소주의는 그 논제의 명료함과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원초적 해석에서의 진리의 역할과 같은 특정한 문제에 적용했을 때에는 복수의 대답이 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이어질 작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에서 진리의 역할을 입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논변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만약 이 기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U_3)를 둘러싼 두 대립 사이에서 보다 올바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장 단

위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언어 사용 행위에서 각각의 문장이 수용 또는 거부되는 주장가능성 조건의 본성을 규정하기 위해 팽창적 진리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작업도 앞으로 필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²⁸⁾

²⁸⁾ 본고의 문제제기는 김동현 (2010) 5장에 기초하지만 주요 논지는 신규 작성이다. 유익한 지적과 조언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김동현 (2010), 『진리 조건적 의미론과 축소주의적 진리 개념』, 고려대학교 철학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 김동현 (2012), “실체적 속성으로서의 진리의 개념과 역할”, 『논리연구』 15집 제1호, pp. 53-83.
- 배식한 (2009), 『반실재론을 넘어서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Armour-Garb, B. and Beall J. C. (eds.) (2005), *Deflationary Truth*, Chicago and La Salle: Open Court Press, pp. 1-29.
- Brandom, R. B. (2008), *Between Saying And Doing*,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son, D. (1967), “Truth and Meaning”, in Davidson (1984), pp. 17-36.
- Davidson, D. (1969), “True to the Fact”, in Davidson (1984), pp. 37-54.
- Davidson, D. (1973a), “In Defence of Convention T”, in Davidson (1984), pp. 65-75.
- Davidson, D. (1973b), “Radical Interpretation”, in Davidson (1984), pp. 125-140.
- Davidson, D. (1982), “Empirical Content”, in Davidson (2001), pp. 159-176.
- Davidson, D. (1983), “A Coherent Theory of Truth and Knowledge”, in Davidson (2001), pp. 137-153.
- Davidson, D. (1984),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Oxford.
- Davidson, D. (1990a),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ruth”,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LXXXVII, No.6, pp. 279-328.
- Davidson, D. (1990b). “Meaning, Truth and Evidence”, in R.

- Barrett, et al. (eds), *Perspectives on Quine*, Oxford: Basil Blackwell, pp. 68-79.
- Davidson, D. (1996), “The Folly of Trying to Define Truth”, in his *Truth, Language, and History*, pp. 19-38.
- Davidson, D. (2001),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Clarendon Press: Oxford.
- Davidson, D. (2005), *Truth and Predi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M. (1999), “Meaning and Deflationary Truth”,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XCVI, No.11, pp. 545-564.
- Williams, M. (2001), “On Some Critics of Deflationism”, in R. Schantz (ed), *What is Truth*, pp. 146-158.
- Frege, G. (1884),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trans. by J.L. Austi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Horwich, P. (1998), *Truth*, Oxford University Press.
- Horwich, P. (2001), “Deflating Compositionality”, in P. Kotatko, et al. (eds), *Interpreting Davidson*, CSLI, pp. 95-109.
- Horwich, P. (2005), *Reflections on Meaning*,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A. (1998), *Philosophy of Language*, UCL Press.
- Quine, W. V. O. (1990), *Pursuit of Truth*, Harvard University Press.
- Sellars, W. (1980), “Inference and Meaning”, in J. F. Sicha (ed), *Pure Pragmatics and Possible Worlds: The Early Essays of Wilfrid Sellars*, pp. 321-358.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강의교수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Anyang University

kdh@anyang.ac.kr

ARTICLE ABSTRACTS

A Deflationary Understanding of Radical Interpretation

Donghyun Kim

Michael Williams, in his paper, rejects the wide-accepted view that Donald Davidson's radical interpretation is a truth conditional account of meaning, and suggests a claim that robust truth in fact does not play any role in Davidson's interpretation and thus interpretation can be in accord with the deflationary theory of truth. In this paper, I will first research the right understanding on the explanatory relations in radical interpretation between truth and meaning, and on that ground, will evaluate the adequacy of Williams' suggestion. My diagnosis is that the acceptability of Williams' idea depends on how we regard the several factors which are crucial for interpretation. Especially I will argue that whether truth condition is regarded as deflationary or inflationary makes difference to the way of understanding radical interpretation, hence the room for taking radical interpretation as deflationary can be in two different ways. Furthermore I will

show the same argument can be applied to Williams' another claim that Paul Horwich's use theory of meaning is similar to Davidson's account.

Key Words: Donald Davidson, Michael Williams, Truth condition, Deflationary theory of truth, Radical interpretation